

# 다양한 삶의 다양한 변주... 내면 속 나와 마주하는 시간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4', 내년 2월16일까지 하정웅미술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고 그 이면에 내재된 개인적 심상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를 작품 속에 펼쳐내는 4명의 청년 작가가 모였다. 제2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4' '사이: 현실과 이성'이 내년 2월16일까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다.

사회·감정 자극... '사이: 현실과 이성' 주제  
강민기·박호은·장재민·윤준영 작가 참여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하정웅 명예관장의 메세나 정신을 기리고 청년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1년에 시작됐다. 그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작업 활동을 펼쳐온 청년작가 총 123명이 선정됐다.

각 권역 대표 공립기관인 부산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12명을 추천 받았으며, 최종 회의를 거쳐 강민기(부산), 박호은(경기도), 장재민(대전), 윤준영(광주) 4명을 선정했다.

강민기 작가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사회구조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인간 사회의 관계망과 사회체제 구조를 그물 형태로 표현하며 어업용 통발과 낚시 그물을 이용해 사회의 모습과 인간 욕망을 시각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작품 '모색', 'Illusion Space', '변질된 상징'을 비롯해 영상작품 'Capturing #1', 'Captured #2'를 선보인다.

박호은 작가는 사회 부조리와 개인적 내면의 불안, 인간관계의 소통 속 야기되는 문제를 주제로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어둠 너머의 풍경-여명의 숲' 시작점은 내면 심상이다. 작가는 개인적인 불안과 우울이 자신을 집착해 올 때의 고통과 두려움, 그

▶윤준영작 '소란한 침묵'

▶박호은작 '어둠 너머의 풍경'



리고 고고통과 불안의 과정, 극복해가는 여정을 통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표현한다. 작가는 시지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조명 효과를 통해 인간 감정의 변화와 움직임의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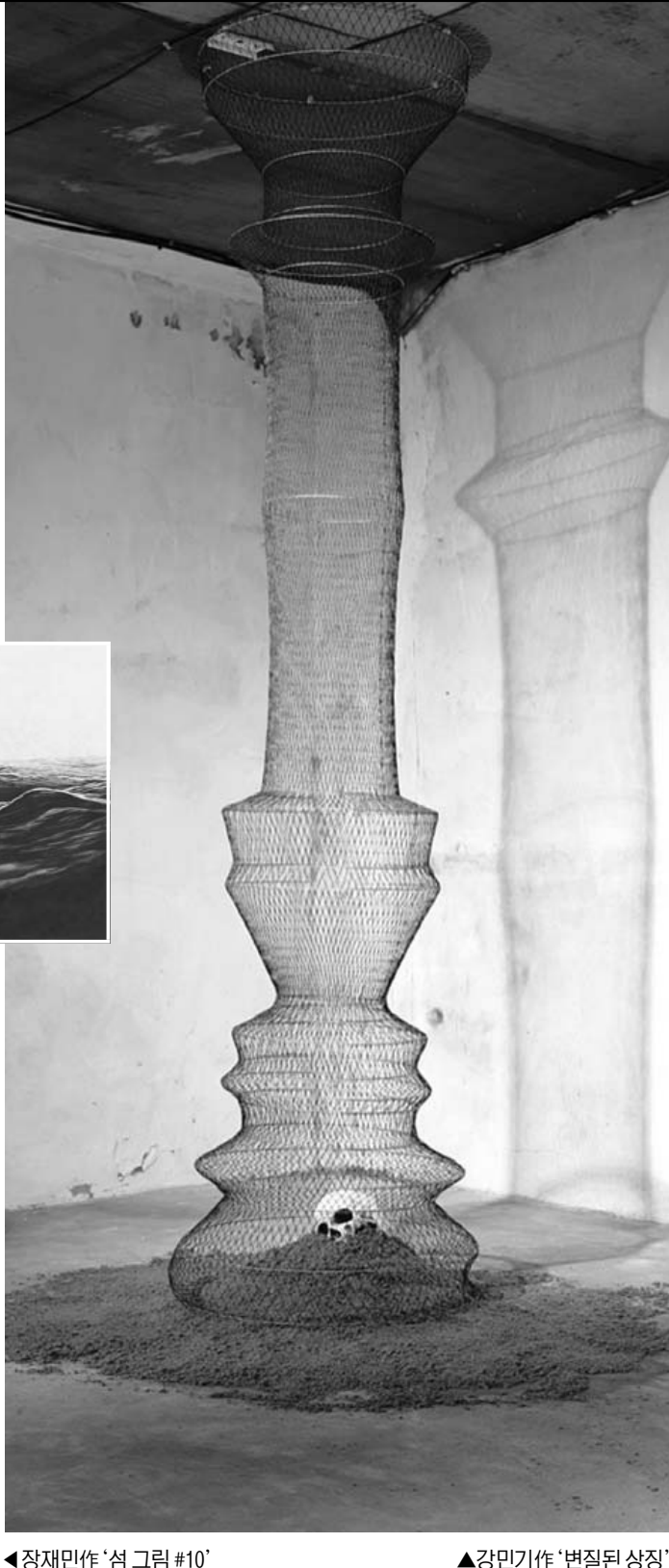
장재민 작가의 풍경화는 대상의 형태가 알려지지 않으며, 원근법적인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가 선택한 장소는 숲, 저수지, 재개발된 공사 현장 등 황폐화된 자연이나 인적이 드물어 삭막한 장소다. 이러한 장소가 갖는 사회·역사적 의미, 환경적 특징을 작

가의 개인적 감정과 결합한다. 작가는 강한 생략 기법과 잿빛 물감을 이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해석하고 작품화한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초기작인 '비린 곳' (2015)과 가장 최근작인 '섬 그림' 시리즈 (2024)를 만날 수 있다.

윤준영 작가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 속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고독감을 주제로 작업한다. 그 밑바탕에는 특히 불안에 대한 감정이 깔려있다. 먹과 용채를 이용해 무채색과 검은색으로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배치하는 것

이 작가 작품의 특징이다. 그의 초기 작품은 칙칙 같은 어둠 속 홀로 떠 있는 등대 그리고 달빛 아래 숲속 풍경, 사방이 닫힌 미로 등으로 불안한 현실 모습을 표현한 결과물이다. 그가 그린 작은 집은 하나의 위안의 공간을 의미하며 작품에 등장하는 물은 삶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희망을 상징한다.

한편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올해부터 (사)광주미술관회와 함께하며 참여작가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명진 기자



◀장재민작 '섬 그림 #10'

▲강민기작 '변질된 상징'

## 남도국악원, 23일부터 '찾아가는...' 대상 시설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이 2025년 '찾아가는 국악원'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찾아가는 국악원' 사업은 평소 공연

장을 찾기 어려운 전남도내 사회복지 시설 이용인들에게 전통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회 운영

된다. 공연은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장소에서 무료로 이뤄지며, 관람 대상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운 맞춤형 가·무·악 종합공연을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1월10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32)로 문의. /최명진 기자

## 큐레이터부터 공연 연출가까지 ACC서 미래 문화예술진로 탐색

'우당탕탕 인턴십' 등 참가자 모집

청소년이 문화예술 관련 진로를 체험하고 미래를 설계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ACC 우당탕탕 인턴십: 나의 커리어 운보딩'과 'ACC 평화이야기보관소'다.

먼저 내년 4~7월과 9~12월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ACC 우당탕탕 인턴십'은 디지털 게임형 교육이다. ACC와 관련된 문화예술 직군을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회당 150명 내외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ACC에 인턴으로 출근 후 사원증과 업무 파일을 받고 동료 인턴을 만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등 ACC의 주요 공간을 돌아다니며 공연 작품 제작, 전시기획, 아시아 문화 연구조사 등 문화예술분야 진로를 탐색하고 주어진 임무 수행 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시를 기반으로 하는 ACC 문화창조원에서는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홍보마케터, 테크니션(설치기술자) 등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



한다. 공연이 중심인 ACC 예술극장에 탄십'은 디지털 게임형 교육이다. ACC와 관련된 문화예술 직군을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이해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회당 150명 내외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ACC에 인턴으로 출근 후 사원증과 업무 파일을 받고 동료 인턴을 만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등 ACC의 주요 공간을 돌아다니며 공연 작품 제작, 전시기획, 아시아 문화 연구조사 등 문화예술분야 진로를 탐색하고 주어진 임무 수행 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시를 기반으로 하는 ACC 문화창조원에서는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홍보마케터, 테크니션(설치기술자) 등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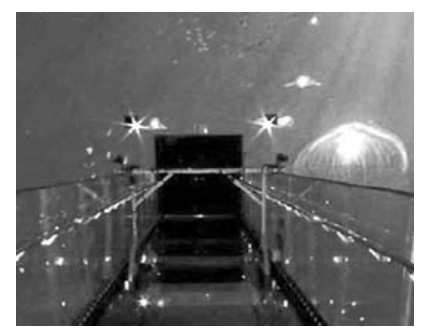
## 6K급 몰입형 영상관 '스페이스360' 재오픈

광주과학관, 최신기술 빔 프로젝터 등 설치

국립광주과학관은 국내 최초 360도 몰입형 영상관인 '스페이스360' 리뉴얼을 마치고 관람객에게 재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관은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기존 사용하던 빔프로젝터, 소프트웨어 등을 철거하고 최신기술이 담긴 1만안시 프로젝터, 3만대1의 명암비 빔프로젝터 12대를 설치했다. 이 장비로 6K급 영상화면을 출력할 수 있어 실감나고 몰입감 있는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단장한 스페이스360에서는 총 2개 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1월10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32)로 문의. /최명진 기자



'헬로 코리아 디노'다.

정세한 국립광주과학관 전시운영센터 연구원은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생생하고 실감나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시설개선을 통해 과학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과 배움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b>시내 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국 222-8171</li> <li>· 산수지국 224-4188</li> <li>· 학운지국 673-6836</li> <li>· 화정지국 372-9140</li> <li>· 금호지국 376-7153</li> <li>· 풍암지국 603-0311</li> <li>· 노대지국 674-358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지국 453-2554</li> <li>· 광천지국 374-2120</li> <li>· 진월지국 676-2726</li> <li>· 봉선지국 673-6836</li> <li>· 백운지국 673-0123</li> <li>· 두암지국 266-1920</li> <li>· 농성지국 362-41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지국 222-8171</li> <li>· 운암지국 529-3548</li> <li>· 용봉지국 261-1503</li> <li>· 신가지국 954-1420</li> <li>· 양산지국 574-3745</li> <li>· 하남지국 951-9954</li> <li>· 운남지국 952-168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치지국 261-9461</li> <li>· 문흥지국 261-9462</li> <li>· 일곡지국 573-3200</li> <li>· 첨단지국 971-7374</li> <li>· 치평지국 371-9584</li> <li>· 수원지국 955-0451</li> <li>· 광산지국 944-0993</li> </ul>
<p><b>지방 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지사 061)270-8689</li> <li>· 동문포지사 061)278-0740</li> <li>· 남문포지사 061)245-3797</li> <li>· 신안지사 061)980-8300</li> <li>· 순천지사 061)746-1600</li> <li>· 여수지사 061)651-643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주지사 061)335-0005</li> <li>· 광양지사 061)793-6800</li> <li>· 구례지사 061)782-4696</li> <li>· 담양지사 061)383-5566</li> <li>· 곡성지사 061)362-5746</li> <li>· 고흥지사 061)832-62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성지사 061)852-6644</li> <li>· 화순지사 061)373-7795</li> <li>· 장흥지사 061)863-6800</li> <li>· 강진지사 061)432-8899</li> <li>· 해남지사 061)535-5849</li> <li>· 영암지사 061)473-715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안지사 061)453-3645</li> <li>· 함평지사 061)322-0882</li> <li>· 영광지사 061)353-5133</li> <li>· 장성지사 061)394-3636</li> <li>· 완도지사 061)555-0134</li> <li>· 진도지사 061)542-4330</li> </ul>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